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예수의 심장으로 평화를 심는 청년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예배 후 9월 정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임원회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지난 여름 생명평화역사기행을 다녀온 청년들이 교우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에게 큰 유익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서를 통해 평화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교사들이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성찬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2일 주일 예배 후 전교인 가을운동회로 모입니다. 새로 오신 교우들도 꼭 동참해주십시오. 귀한 사립의 시간입니다.

욕망을 절제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녹색 세상을 만드는데 사용할 녹색꿈헌금을 마련해보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자비하신 하나님,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의 변화를 주셔 무료로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에 새로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높고 푸른 가을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넓은 품을 떠올려봅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심,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탐욕으로 오그라드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을하늘만큼 넓고 깊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보다 다른 이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크게 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손끝에 박힌 가시보다 다른 이의 가슴에 박힌 대못을 작게 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산다는 것은 결국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의 마음 아픔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춘려 강인식 김정숙 김근종 정옥영 김용진 박효선 김신옥 김준호
 곽혜자 김윤수 박상호 김혜권 박규석 박경선 박애순 박창운 허정운
 배근수 임승동 백혜숙 정완수 김재광 전월수 정복순 장성호 양재성
 권미숙 임고은 허호범 서수진

월정헌금:

김극 김남종 오복순 박준희 이기분 배부례 이봉배 이성범 이유선
 방극숙 전영자 박찬정 최동운 황의일 윤여민 임보람 구자훈

감사헌금:

한상의 정영선 곽경선 김준호 배근수 김금순 이태민 박찬정 최동운
 문희창 이한림 김명희 김순복 조항범 오현정 김용진 가정 무명1
 오래된 미래

생일감사헌금 : 김재홍

녹색공헌금 : 문복순 장혜숙 무명 (누계: 3,086,000원)

	장혜숙	장혜숙	조순덕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김윤수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정복순
	문영혜	박경선	김진경	이명희
	안정숙	박애순	최희영	조병주
	박홍재	곽권희	송의섭	심
	박효선	허정운	김정애	심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심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심
	이형숙	권미숙	황선희	김필순
	안홍숙	오현정	박찬정	임수연
	백혜숙	정옥영	정영선	야외
	송양진	유경순	송양진	김혜권
	이영란	박미영	이영란	야외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심

분별의 은혜를

하루를 돌이켜 봅니다.
 선악을 분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언제나 노력했건만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오가 있다 하여 모두 악한 이들은 아니며
 잘못이 없다 하여 모두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에겐 당신 뜻이라 하여
 거룩히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낱아버린 사고방식에 불과하고
 우리 조상들이 악으로 알고 대적하여 투쟁했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사명으로 부각되고 있사오니
 주님, 도대체 무엇이 당신 뜻이옵니까?

나는 당신 앞에 나의 하루를 펼쳐놓사오니
 부디 저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청년의 기상을 깨우십시오. 상황과 여건만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늘 새로움을 꿈꾸는 이들이 되십시오.

아멘. 절망과 고통의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겠습니다. 청년 예수의 기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비굴해지지 않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생명평화역사기행 보고회	성서에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주관 / 청년회	기도 / 오현정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곽권희 집사 방문성 장로	인도자 정원석 집사

9월	영접위원	조병무 하현철 조관행 이형숙 최성애 홍선희
	헌금위원	조병무 정영선(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젊음

매력은 젊음에 있다. 젊음처럼 좋은 것은 없다.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름다움 자체다. 젊음은 구태여 더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 속에 이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더 아름답게 하지 않아도 그대로 아름다운 것이 젊음이라는 것이다. 더 좋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그대로 좋은 것이 젊음이다. 더 참 되려고 하지 않아도 그대로 참된 것이 젊음이다. 더 깨끗하게 하지 않아도 그대로 깨끗한 것이 젊음이다. 늙으면 사람은 미워진다. 늙으면 사람은 더러워진다. 늙으면 사람은 체면을 차리게 되고 늙으면 사람은 굳어진다. 그것은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나 젊어져야 한다. 젊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요 늙은 사람은 시간에 사로잡힌다. 시간은 때요, 때는 더럽다. 때는 거짓이요 허무하고 그른 것이다. 사람은 때를 씻어 버리고 언제나 젊어야 한다. 언제나 깨끗하고 언제나 참되고 언제나 아름답고 언제나 좋은 것이 젊음이다. 젊음에는 고집이 없다. 젊음에는 언제나 다시 해 보는 여유가 있다. 젊음은 영원하다. 그것은 아직도 부드럽기 때문이다. 젊음은 언제나 배우려고 한다. 젊음은 언제나 욕심이 없다. 젊음은 언제나 공 을 원하지 않는다. 젊음에는 과거가 없다. 언제나 미래가 있을 뿐이다. 젊음에는 언제나 후회가 없다. 소망이 있을 뿐이다. 젊음에는 미움이 없다. 사랑뿐이다. 젊음에는 불신이 없다. 믿음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젊음을 좋아한다. 그리고 언제나 젊어지고자 한다. 젊음이 모인 곳이 천국이요 젊음이 사는 곳이 낙원이다. 젊음은 언제나 기쁘고 젊음은 언제나 즐겁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젊어지기를 원한다. 세상에 젊음처럼 강한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노력은 젊어지는 것이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젊음뿐이다. 젊음은 영원한 생명이다.

가을

가을이 되면 알곡이 무르익어 모든 곡식은 머리를 숙이고 오래 붙어

있던 집을 떠난다. 집착을 벗어나니 욕심이 없어지고 속알이 영그니 교만이 끊어진다. 욕심이 없어짐을 무욕이라 하고 교만이 끊어짐을 무지라고 한다. 자연은 무지무욕이다. 사람도 역시 속알이 익으면, 머리는 숙어 교만이 끊어지고 집착은 끝나 욕심이 없어진다. 마음속에 속알이 무르익으면 마음은 저절로 기쁨으로 뛰고 이삭이 무거워 머리를 숙이면 속알은 즐겨 몸집을 떠난다. 몸집을 떠나가고 마음이 옹근 속알이야말로 실존이요 영혼불멸이다.

인류에 있어 최고의 사상은 영혼불멸에 그 근원을 가진다. 영생이 없다면 인간은 지푸라기요 쓸겨에 불과하다. 인생이 부활의 봄을 기다리는 것은 십자가에 영혼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영혼의 수많은 알곡이 곡간으로 견어들어져 그 나라와 그 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 집을 떠나 머리를 숙인 사람, 깊이 생각하고 높이 앉은 사람, 산은 푸르고 강물은 맑다. 집을 떠나 한 데 앉아 산처럼 푸르르고, 머리 숙여 깊은 생각에 흐르는 물은 한없이 맑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있다. 흐르는 시냇물처럼 생각하고 푸른 산처럼 솟아 있다. 산이 높아 물은 흐르고, 물이 흘러 산은 빛난다. 존재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존재는 높아진다. 무욕에서 무지가 나오고 무지에서 무욕이 빛난다. 존재와 인식은 푸른 산과 맑은 시내라고 할 수 있다. 푸른 산 속에 맑은 시내가 흐르고 맑은 물 위에 푸른 산이 비친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은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높은 하늘에 청산이 드러나고 기름진 말이 강변에서 풀을 뜯는다. 하늘은 끝없이 높고 말은 힘차게 뛰다. 하늘을 나는 말이요, 말을 빛내는 하늘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늘은 한없이 높고 말은 끝없이 기름지다. 높은 하늘 기름진 말, 가을.

--김홍호, <<사랑보다 아름다운 것>> 중에서

용기를 내어 옳은 일을 하라.
순간의 기분에 흔들리지 말라.
용감하게 진실을 고수하라.
불확실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
--디트리히 본회퍼